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닭고기 자조금이 육계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다

여전히 농가의 자조금 납부율은 30%에도 못 미쳐

예견된 닭고기산업의 위기

2011년부터 시작된 육계산업의 불황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소비는 최악의 상황이고 수입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의 닭고기 수입량이 월별로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과 미국산 닭고기에 이어 태국산 닭고기까지도 대폭 증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종계사육수수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닭고기의 생산과잉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생산증가의 원인이 원종계와 종계의 과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도태나 감축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수입닭고기에 대한 대처 역시 미흡하였다. 과거와 달리 수입닭고기가 독자적인 유통망과 소비처를 만들어 가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지만 업계의 대응은 국산 닭고기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닭고기는 줄어들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막연한 기대로 버텼다. 결국은 닭장정이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은 대부분 수입산이 차지해 버렸고 30% 가까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육계산업은 고질적인 병폐에 시달려 왔다. 지난 20여 년간 계열화사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불신과 반목이 어어졌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결속력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생산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의 영향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에 생산과잉이나 수입닭고기의 증가 등에 무관심해졌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 대부분의 계열사가 적자를 이유로 사육보수를 인하하였고 지난 연말에는 소규모 계열업체가 도산하는 등 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난 겨울 재입식을 위한 휴지기간이 길어졌고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국내닭고기 산업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입닭고기의 증가는 지금 당장의 불황 원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생산 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초대형 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계 생산농가를 도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작년 가을부터 종계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서로의 이해타산에 밀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 최악의 불황을 겪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시작하여 종계 100만수 감축과 원종계 감축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종계감축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다. 수입닭을 막아내지 못하면 수입닭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해서 종계를 줄여야 하고 결국은 닭고기시장의 대부분을 수입닭고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토종닭협회가 공동으로 수입닭을 막기 위해 동서분주 하였으나 오히려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변해야 산다.

닭고기 자조금사업 초기에 농가들은 자조금으로 소비홍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으로 닭고기 소비홍보를 해서 가격이 올라도 계열사에서 사육보수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계열사 역시 이익의 분배를 게을리하면서 이런 불신을 키워 왔고 자조금 사업 역시 계열사의 비협조로 30%에도 못 미치는 납부율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사이 산업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농가나 계열사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닭고기를 팔아야 하는 계열사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수입닭고기 판매의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생산농가가 원종이나 종계의 감축을 논의한

다는 것 또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생산자가 앞장서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열사가 도움을 주고 계열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때는 농가가 계열사를 중재하는 상생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축산물 위생에 관한 통제도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도계장의 관리 감독은 물론 농가가 생산하는 닭고기의 위생과 품질도 식약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새 대통령이 식품의 불안정한 위생을 4대약 중의 하나로 천명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조차 없다. 이 문제 역시 농가와 계열사 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풀어나갈 수 없다.

희망적인 것은 작년부터 계열사가 자조금 사업에 동참하면서 대화의 통로가 만들어 졌고 동반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닭고기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자조금의 역할

닭고기 산업에는 여러 관련 단체와 기관이 있다. 이런 각 기관과 단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조금이다.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자조금 안에서는 오로지 닭고기 산업발전이라는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뭉쳐질 수가 있다. 닭고기 시장에서 수입닭고기를 쫓아내고 지속적인 소비홍보를 통하여 닭고기 시장의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적정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타 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닭고기 자조금은 축산단체 간에 이해가 달라 조성금액의 부족으로 소비홍보에 소홀히 해왔고 농가의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고 직접적인 소비홍보는 흥남만 내는 정도였다. 작년에서야 토종닭과 계열사

가 동참하면서 자조금의 외형이 커지기 시작했고 금년에는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농가의 자조금 납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닭고기 자조금이 제 몫을 다하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닭고기 자조금이 농가나 계열사 어느 한 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그 결과 산업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농가의 무관심과 도계장의 협조가 부족하여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원이 빈약하다보니 본연의 자조금 사업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번 대의원 총회에서 거출금을 수당 5원(농가 2원, 계열사 3원)으로 인상하고 계열사와 농가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자조금이 정상화 되도록 결정하였다. 작년에 대부분의 계열사는 이미 3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하였으나 우리 농가들은 약 28%의 농가만 3원씩 납부하였다. 따라서 농가의 부담을 낮춰 도계장에서 2원씩 의무적으로 거출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닭고기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계열사와 농가의 단합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입닭을 막는 일은 농가만이 할 수 있고 자조금의 정상화는 계열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동안 닭고기 자조금은 축산계열화법의 산파역할을 했고 농가의 위상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제는 닭고기산업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자조금이 되어야 한다. 자조금을 통하여 농가와 계열사가 협조하고 상생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홍재





(주)참프레
김 동 수 회장

생년월일 1955. 10. 19

학 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수 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중소기업 CEO 대상 수상
윤리경영 종합대상 수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국가산업발전기여]

경 력 (전) 주식회사 화성산업 대표이사 역임
(전) 주식회사 호남연료 이사 역임
(전) 군산시 체육회 이사 역임
(현) 주식회사 참프레 회장
(현) 주식회사 동우 회장
(현)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주식회사 나농 회장
(현) 군산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현) 군산세무서 세정자문위원회 부회장
(현) 법무부 범죄예방 군산·익산지역 협의회 자문위원장

경영철학

완전계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회사
즉 원가경쟁력 확보 및 최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경영
제품개발을 통한 식문화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
에 기여 :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최고품질
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제품개발을 통한 국
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회사경영



인터뷰하자

최전방의 보루
양계농가와 상생위해
역량 집중할 것

종계감축 이후, 원종계 도입수수 확실하게 조절해 나가야
국산 닭고기의 제품개발 및 소비자 접근성 강화에도 힘써야

(주)참프레 김동수 회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축산업 중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계육 계열화사업이라 판단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동우와 더불어 올해 전북 부안에 (주)참프레를 설립하여 국제경쟁력(Global Standard)을 확보하고 국내 최대·최고의 닭고기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업계 최고의 시설투자를 진행하여 참 닭고기가 어떤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확신과 자신감이 충만한 임직원들과 함께 최고의 닭고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동수 회장은 “양계농가는 최전방의 보루 즉, 가족농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육농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참프레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참프레는 현재 좋은 품질의 원자재(사료·병아리 등)를 공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양계 계약농가가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농장 신개축), 사양관리 지도, 지속적인 농가세미나, 프로그램 책자발간, 중점 환기 관리, 효율개선 사료개발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김동수 회장은 앞으로 (주)참프레라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닭고기와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3월 6일 개최된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30억 원의 종계감축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종계감축 이후, 어떤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육계 계열화라는 사업집중이 가속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육의 공급과잉에 따른 육계시세 하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종계감축사업은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극단적인 단초라고 판단합니다. 치킨게임의 종식이라고나 할까요. 후속조치로는, 원천적으로 원종계 도입수수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후방사업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로 그 수수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조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국내 경기침체로 닭고기 소비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업계의 판매촉진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닭고기 자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까요??

양계농가와 계열업체 모두를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상생·협력이므로 소비자가 신선하고 깨끗한 국내산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게끔 홍보하고 촉진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료가 비싸지만 TV를 포함하여 자막, PPL, 포스터, 옥외간판 등 효과적인 광고와 더불어 시식행사(날짜 지정)의 다양화 등 세밀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모션을 장기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월 23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법의 시행과 더불어, 계열화사업자와 양계농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이 법의 목적은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한 동반관계, 능동적인 관계, 공정거래, 공존공영 등 상호의존 체계가 전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능분담을 원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계열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농가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육계를 사육하는데 전념하고, 계열화사업자는 후방적인 도계·가공·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수입닭고기가 2010년 이후 10만톤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닭고기를 막고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밀려오는 수입산 닭고기를 저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산 신선 닭고기의 차별화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입산 냉동 닭고기와 국내산 냉장(신선) 닭고기의 품질차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제품개발과 소비자의 접근성도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를 아울러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비자는 냉동이 아닌 신선을 선호하므로 고객만족을 위한 시장조사·분석·판단으로 계육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H O T
ISSUE

100만 수 종계감축...가출금 육계 5원, 삼계 3원 인상

농가 부담은 육계 2원, 삼계 1원으로 낮아져



앞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종계감축사업이 추진되면서 닭고기 값이 안정을 찾고,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으로 거출실적이 늘어나면서 보다 다양한 자조금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6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갖고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과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을 승인했다.

한병권 의장은 총회에 앞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준비하

고 있다”면서, “양계농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총회에서는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이 논의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총 47억 원에 이르는 닭고기자조금 중 30억 원을 종계감축 사업에 투입하게 되며, 육용 종계를 1단계에서 53만 8천 마리, 2단계에서 46만 2천 마리를 감축하여 총 100만 마리를 감축하게 된다.

이어서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도 통과되었다. 거출금액을 육계가 3원에서 5원(계열사 3원, 농가 2원(개인농가 포함)), 삼계가 1.5원에서 3원(계열사 2원, 농가 1원(개인농가 포함))으로 인상하며, 토종닭 10원과 종계 3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로 했다. 단 종계의 경우, 지난 2월 7일 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총회 전까지 종계업계의 합의를 거쳐 50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종계분과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인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거출금 인상안과 발맞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10억 원 정도의 거출금액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종계감축으로 축소되었던 소비홍보나 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자조금사업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자조금 예산안을 새로 구성하고 다음 대의원 총회 시에 의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종계를 성공적으로 감축하여 수급조절이 이루어지고 닭고기가격이 안정된다면, 닭고기자조금의 균형있는 활용을 통해 양계산업이 회복되고 다시 한 번 ‘국민 제 1의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접수기한 연장

현대화사업 완료 후,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무허가 축사에도 지원 가능

농림수산물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더 많은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접수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사의 신개축과 개보수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업농 미만~전업농은 보조와 용자를 함께 지원하고 기업농은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게 된다. 2천 140억 원이 소요되는 보조방식은 보조 30%, 용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2천 125억 원이 소요되는 이차보전방식은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비 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는 추후 개별 정화처리 지원사업 확정시에도 동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각 지자체별 양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 무허가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완료 후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갖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축 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축사로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 시에는 정부지원액을 환수조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축사 및 축산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계농가가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인 닭 관리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해 본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

무허가축사 80%까지 적법화 가능할 듯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관련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축산현실에 맞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농민들의 구제방안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따르면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축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됨에 따라 축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졌으며, 개정안 발표 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우선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마련을 통해 현행 축사에 대규모 시설투자나 보완이 없어도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전 또는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 향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유지하며, 부처합동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가축분뇨법, 건축법, 소방시설 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내 용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개선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축산분뇨처리 시설 면제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현 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 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15개 시·도(시 6, 도 9)의 180개 시·군 조례를 조사(12.8.10~30)한 결과, 157개 시·군(87.2%)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 제정·운영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닭·오리 500m -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개선방안	축산 규모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방수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 면제 -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설정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소방 관련시설 개선은 소방방재청 협조 하에 법령 개정 추진

H O T
ISSUE

0 0 3

양계협, 전국 육계인 토론회 통해 결속력 강화

생산자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주인의식 및 적극적 동참 요구돼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월 6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2013년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갖고 양계농가의 주도권 회복 및 수입산 닭고기 대처 등 다각적인 양계산업의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이준동 회장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계열사의 직원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양계농가들이 닭을 정직하게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아군으로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농림수산물부의 김정주 사무관은 '무허가 축

사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계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김 사무관에게 과도한 과징금액·지역별 견제율의 상이점·깎개 문제 등 일선 농가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문의하고 개선책을 건의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다루며, 국내 양계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양계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비록 수입산 닭고기가 증가하며 농가에게 불리한 수직계열화가 일반화되었지만, 양계농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생산자의 주도권을 회복할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을 위해 육계와 종계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참석한 양계농가들도 대형농장의 등장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이에 동의했다.

앞으로 육계와 종계의 총량제한, 수평계열화, 수입산 닭고기 저지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만큼, 양계농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생산자조직 간에 결속력을 강화한다면 다시 한번 양계산업의 주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 개최

3월 12~20일 실시...의견수렴 후 보완작업 및 효과적 대책 마련

농림수산물부(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3월 12~20일까지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설명회 순회계획을 살펴보면, 경기·강원·제주 권역은 3월 12일 안성시 농협안성교육원, 충북·충남 권역은 3월 13일 안성시 농협안성교육원, 경북·경남 권역은 3월 19일 창원군 새궁전예식장, 전북·전남 권역은 3월 20일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농식품부에서 부처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관리 정책을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내용을 세부실시요령 마련 시에 반영하고, 현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에는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을 마련하고 9월에 지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필]

1955년 8월 29일
(경북 의성)

학력 ▲ 영남대 축산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 美 미주리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위원 ▲ UN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 CGPRT센터 기술자문위원 ▲ 농림수산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농림수산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농촌희망찾기현장포럼 대표 ▲ 제12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수상 ▲ 1999년 국민포장 ▲ 2011년 국민훈장 동백장

이동필 신임 농림축산부 장관

농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은 농업경제 분야 전문가

제18대 정부는 신임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이동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이 장관은 199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 축산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학원 농업경제학 석사와 美 미주리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위원, 농림수산물부 규제심사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는 등 농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

력을 쌓은 농업경제 분야 전문가이다.

2011년 10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제12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30여 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농업 정책연구와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부임한 후에는 직원들에게 "농심(農心)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도록 당부해 왔다. 실제로 이 장관은 2011년 막걸리 등 전통주 부활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농경연, 4~5월 육계 산지가격 하락 전망

양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종계도태 사업 시행 요구돼

4~5월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종계도태의 조기시행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7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 대비 2~11%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3월 도계 마리수는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와 출하일령 단축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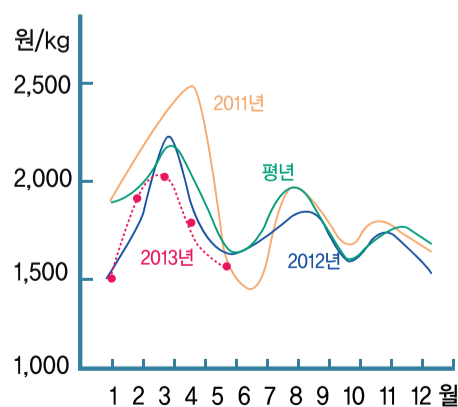
6천 84만 마리로 내다봤다. 3월 닭고기 수입량 또한 전년 대비 4.2% 증가한 1만 1천 293톤으로 전망했으며, 2월 3일 기준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27.6% 증가한 998만 마리라고 전했다.

종합적으로 도계 마리수, 비축물량, 수입 증가로 인해 3월 닭고기 총 공급량이 전년보다 5.8% 증가한 8천 537만 마리이며, 3월 육계 생체 kg 당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5~15% 하락한 1,900~2,100원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4~5월 닭고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도계 마리수 증가로 4월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3~15% 하락한 1,500~1,700원/kg으로, 5월은 전년 대비 1~10% 하락한 1,400~1,600원/kg으로 전망되어 수급안정을 위한 종계도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닭고기 생산성 향상이 맞물려, 앞으로 육계 산지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평년을 밑도는 육계 산지가격으로 인해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양계농가들이 종계도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양계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닭과 닭고기

닭부산물 소비가 활발, 위생관리는 아직 미흡

우리나라도 닭발이나 닭똥집 등 일부 닭 부산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부산

베트남 닭고기 유통현지조사를 다녀와서 (2)

물 소비가 더욱 발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닭머리와 내장, 닭다리가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며, 현지 식당에서도 닭발을 탕에 넣어 끓여먹거나, 바비큐처럼 구이 메뉴로 판매하고 있었다. 머리와 내장 등은 닭 육수를 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출롱 재래시장은 호치민 시내에 위치한 현지인이 주로 찾는 전통 재래시장이었다. 시장 한 켠에서는 우리나라 시골 재래시장과 같이 닭장 안에 여러 마리의 산 닭을 팔고 있었으며, 바로 옆에는 도계육이 진열되어 있었다. 재래시장의 닭고기 판매점은 널찍한 쟁반위에 (머리와 발이 붙은)통닭과 닭 내

장, 닭발, 닭머리 등이 구분되어 진열되어 있었다. 연중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호치민의 특성상 이러한 판매형태는 다소 비위생적으로 보였으며, 고병원성AI 다발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유추되는 부분이었다.

베트남, 가격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노계육 수출시장으로 적합

베트남은 GDP 1,354억원으로 우리나라 1조 1,635억원에 비해 아직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지 못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모든 신흥국가들이 그렇듯 축산물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득수준이 낮고 축산업보다는 쌀이나 커피 원두 등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닭고기를 삶아 육수를 우려내먹는 습관과 부분육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계육의 수출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한국산 노계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다면 앞으로 노계육 수출시장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육계질병가이드 / 감보로 백신

Q. 감보로 백신의 종류가 많은데 어떠한 백신이 있고, 어떻게 선정해야 좋을까요?

A. 감보로 백신은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가 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 필드에서 사용되는 생독백신은 크게 intermediate(중간독), intermediate plus(중간독플러스) 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중간독 플러스가 훨씬 더 강하고 중간독보다 방어역가가 높습니다. 역가가 높다는 것은 독성이 더 강하다는 뜻이지요.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증식하고 면역을 만들어주니 필드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독 백신은 플러스보다는 느리고 약한 면역이 형성됩니다.

두 백신 다 모체이행항체가 없다면 언제라도 투약하면 5일에서 2주 이내에 혈청으로 방어 역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만일 간단한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주변에 발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감보로 유사한 발병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독을 권해 드립니다.

감보로 백신은 보통 1회 음수백신으로 충분한 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체이행항체수준과 투여일령에 따라 누락되는 닭들이 생기기 때문에 2차로 백신을 합니다. 누락되는 닭을 위해 추가로 백신을 하는 것이지 더 높은 면역을 위해 2차 백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외에도 항원+항체가 결합된 형태의 Immune complex 백신(면역복합체 백신)과 감보로병의 유전자를 마렉이나 다른 백신에 삽입하여 효과가 나도록 만든 recombinant(유전자재조합) 백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백신은 1일령 병아리에 개체접종을 합니다. 종계에서 물려받은 모체이행항체가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체이행항체가 소멸되는 시점에 맞추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백신입니다.

둘 다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백신의 평가에 앞서 계군의 모체이행항체 균일도를 측정한다면 백신 프로그램 설계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필드에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언제든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양계농가, 온·습도 및 환기 관리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 힘써야

환절기를 맞이하여 양계농가들이 철저한 온·습도와 환기 관리를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일교차가 심한 봄철 환절기에 양계농가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지침들을 발표했다.

첫째로, 일교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봄철 특성 상 바깥의 급격한 온도변화가 그대로 계사 내에 전달된다면, 호흡기성 질병에 걸리기 쉽고 발육이 지연되는 등 닭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봄철 환절기에 날씨가 풀렸다고 보온시설을 바로 제거하면 새벽에는 계사온도가 떨어지므로, 방한시설을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계사 내 온도 차가 10℃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낮에는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계사 내에 충분히 공급해 주고, 밤에는 해가 지기 전에 창문을 닫아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줄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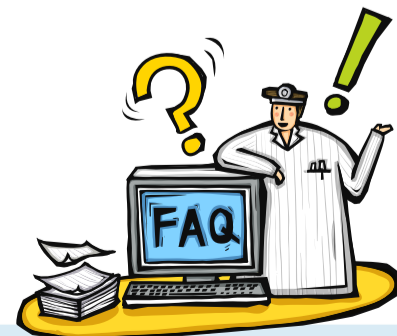
셋째로, 봄철에는 일조시간이 길어져 닭의 모든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계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계사 내의 습도는 병아리 기르기 초기에는 70%, 2주령에는 65%, 3주령 이후에는 60%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건조 예방을 위해서는 1주 정도는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가습기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환기가 안 되면 콕시듐증, 장염, 호흡기성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발육이 지연되며 사료 효율도 떨어져 폐사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계사의 구조, 일령, 기후, 사양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나른해지는 봄기운에 자칫 양계 사양관리 요령을 놓치기 쉬운 시기로, 이럴 때일수록 양계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닭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양계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환절기 양계 사양관리 요령 제시



총회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가 공무원 및 농가, 업체에 협회 장상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등 총 33명의 포상이 이루어졌다.(△협회장상(감사패):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오정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표창): 홍인식, 정종식, 박광식, 김원상, 편도연, 정동채, 김정 연구소장 이동기, △농촌진흥청장상(상장): 김진길, 송영대, 농어촌공사사장상(표창): 최송인, △농협중앙회장상(표창): 이원근, 이수복, △협회장상(감사패): 홍성 농업기술센터 박세규, 충남도청 축산과 백명기, 익산시청 축산과 유정안, 광주시청 축산과 한구천, △협회장상(감사패): 삼양케이지 이범성, 동남농원 윤용구, 우진비엔지 강석진, △협회장상(표창): 이원규, 장환필, 박찬우, 최광일, 정영상, 서영부, 곽명숙, 김재선, 오두환, 이적호)

주요 보고사항으로 김정소 신축관련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결사항으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협회 회

원배가운동 및 회비인상안에 대해 회원 회비가 협회 재정수입의 10% 선에 미치고 있으며, 타 축산단체에 비해 회비금액이 낮은 만큼 2008년 실시한 회원배가를 인한 회비인하 방침을 2014년부터 기존대로 복원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현행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정기회비는 회원 1인당 3만원으로, 회원 배가운동을 위해 기존 5만원에서 2008년부터 한시적인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안건에 대해 회비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회비 거출율이 낮아 회원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도지회의 경우는 회원이탈 및 미수금 증가로 인한 경영여유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준동 회장은 본회를 중심으로 양계농가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지부의 활동을 독려하고 간행물 홍보를 통해 농가와 협회 간 접촉기회를 제공하며 대형 농장이나 업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며 “올해는 전년과는 달리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전년도 11월부터 논의됐던 육용종계, 원종계 감축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데다 추가적인 육성종계 도태 계획까지 세워져 큰 무리가 없는 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업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축산물위생안전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닭고기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계열화사업자, 농가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함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도계비의 현실화,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의 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해 닭고기 생산경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동시에 협회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재정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역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계육협회는 일반회계 741백만원, 간행물특별회계 255백만원 등 총 996백만원의 사업계획과 중계도태사업비를 위한 자조금 1천 500백만원을 거출하기로 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계육협회,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11대 회장에 정병학 회장 재선임

(사)한국계육협회 제11대 회장에 정병학 회장이 재선임을 받았다.

지난 2월 28일(목)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한국계육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협회 회장에 정병학 회장을 재선임하고 협회운영에 대한 전반을 위임했다.

정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가뜩이나 험겨운 한해를 보냈는데 다시 회장에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며 “회장에 재 선임된 만큼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회장은 “지난해는 닭고기 업계를 덮친 불황의 늪을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적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한닭판매 인증점과 박람회에서 배포할 예정...한닭의 인지도 향상 기대



[토종닭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3월 5일 토종닭홍보용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홍보용 리플렛과 포스터를 통해, 한닭에 대해 소개하고 ‘한닭인증제’의 인지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닭인증제’란 일반 닭이 한닭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계(어미 종자)에서 판매점까지 토종닭의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체계화한 인증제도이다.

토종닭홍보용 포스터는 이처럼 철저한 생산 및 유통과정을 거친 토종닭을 판매하는 ‘한닭판매 인증점’에 부착하게 되며, ‘한식 세계화의 원천기술 우리종자 한닭’이라는 문구와 함께 토종닭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게 된다.

또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홍보용 리플렛에는 토종닭의 또 다른 이름인 ‘한닭’을 소개하고 한닭의 효능과 영양성분, 맛있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한닭이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토종닭홍보용 리플렛은 각종 박람회나 행사가 진행될 경우, 관람객들에게 직접 배포하여 한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day's
계림 열전
열戰

닭고기 양장피 냉채

나른한 봄날에는 시큼한 식초와 알싸한 겨자를 더해 식욕을 돋우는 양장피가 제격이다. 여기에 영양만점인 닭살을 얹으면 건강도 챙기고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재 료 닭살(밀간 - 생강즙, 소금, 청주, 간장, 흰 후추), 토종닭훈제 200g, 양장피 2장(밀간 -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다진마늘 각1/2큰술, 소금 1/2작은술), 오이 2개, 적양파 50g
소 스 연겨자 1큰술,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 땅콩버터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육수 4큰술

Cooking

1. 닭살은 생강즙, 소금, 청주, 간장, 흰 후추를 뿌려 20분간 찐 다음 식혀 찢어 놓는다. (토종닭을 사용할 경우 훈제로 준비하여 살을 찢어 놓는다.)
2. 오이는 소금에 비벼 씻어 굵게 채 썰고 적양파는 얇게 채 썬다.
3. 양장피는 삶아 냉수에 씻어 건져 먹기 좋게 뜯어 물기를 뺀 다음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버무려 놓는다.
4. 소스는 재료를 섞어 차게 식힌다.
5. 접시에 오이채, 양장피, 적양파, 닭살 순으로 담고 소스를 뿌려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놀이 날말맞추기

1			7	8	
2		3			
				9	10
	4				
5			11		
	6				

◇ 가로풀이 ✨ ✨

- ② 차 따위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
- ④ 법령·예산·조약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 ⑤ 설명·증명 등을 거치지 않고 곧 사물의 진상을 마음으로 느껴 읽
- ⑥ 대단히 많은 수
- ⑦ 중병을 앓는 환자
- ⑨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 ⑩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 세로풀이

- ① 환기불량, 영양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개체의 깃털을 쪼아 먹는 행위
- ③ 물건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가게
- ④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
- ⑧ 절기가 바뀌는 시기
- ⑩ 농촌진흥청이 15년에 걸쳐 품종 복원하여 개발·육성한 토종닭
- ⑪ 자세히 조사하여 물수함

42회 정답

뉴	미	디	어	사
햄			감	미
프	리	뷰		
셔		인	환	우
종		인	왕	산
	폴	더		표
				빙



... 43회 정답은 44호에 게재합니다

소개하자 육계의 균일도 판단 방법과 체중 측정 요령

균일도 80%이면 우수...체중에 따라 적절한 저울 사용해야

닭의 주령에 알맞은 성장은 체중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데, 체중 측정에는 계군의 실제적인 체중 범위가 필요하다. 계군의 실제적인 체중은 ±g 및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군의 체중 차이는 균일도로 표시되는데, 균일도가 80%이면(평균체중의 ±10% 범위에 80% 이상의 개체가 속하는 것)

우수, 균일도가 70%이면 보통, 균일도가 60% 미만이면 불량한 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관찰하고 출하 시 체중을 예측하기 위하여 계사 안의 2개 장소에서 50~70수의 체중을 측정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인데, 유연한 망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우리 안에 50~70수의 닭들을 조심해서 몰아넣고, 모든 닭들을 개체별로 체중을 측정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체중에 도달하는 닭의 주령을 예측하기 위하여 매주 단위로 반복하여 체중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육계의 체중이 1kg 이상이라면 20g 단위의 스프링 저울이나 전자저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보다 작은 닭들은 2g 단위의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체중 차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거나, 초생주혹은 1주령의 닭들은 한꺼번에 체중을 측정할 수 있다.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